왜 나는 영어를 열 번 시작했을까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6개월 영어 말하기 지도

ECHO · HEBRONLINGUA · 무료 책자

CONTENTS

차례

00 들어가며: 열 번째 시작

01 우리는 왜 멈추는가

02 언어는 어떻게 자라는가

03 듣기만으로는 입이 열리지 않는다

04 단어보다 덩어리

05 가장 빠른 길: 영어밖에 없는 자리

06 6개월 6단계 지도

07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08 성장을 귀로 확인하는 법

09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자료

10 나가며: 첫날 30초

이 책을 읽는 법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장마다 끝에 오늘 해 볼 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직접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휴대폰 녹음기를 켜 주세요. 그 30초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00 · INTRODUCTION

들어가며: 열 번째 시작

"이번에는 다를 거야"를 몇 번 말해 보셨습니까.

책장 어딘가에 반쯤 쓴 단어장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의 스무 쪽은 빽빽하고, 그 뒤로는 하얗게 비어 있는 공책입니다. 휴대폰에는 한때 매일 열던 영어 앱이 아직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연 날이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이직이나 이민을 앞둔 어느 날. 우리는 영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뜨겁습니다. 그러다 바쁜 주가 한 번 지나가면 공책은 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 **나는 원래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책은 그 생각에 정중하게 반대하려고 쓰였습니다. 영어를 여러 번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다시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열 번이나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는 자라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방법은 그 순서를 거꾸로 걸어가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문법을 먼저 외우고, 단어를 따로 외우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입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멈춘 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도를 건네 드립니다. 왜 멈췄는지, 언어는 어떤 순서로 자라는지, 그리고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면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지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열 번째 시작이 마지막 시작이 될 수 있도록.

01 · WHY WE STOP

우리는 왜 멈추는가

실패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내 모양을 알면 처방이 달라집니다.

영어 공부를 멈춘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재와 앱은 모두에게 같은 처방을 줍니다. 계획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도, 입이 안 열리는 사람에게도 "단어 하루 50개"를 권합니다. 아래는 사람들이 영어를 멈추는 여섯 가지 모양입니다.

계획가: 시작은 훌륭한데, 계획에서 끝납니다

공부 계획표를 짜고, 교재를 고르고, 앱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해냈다는 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처방: 계획은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할 일 하나"만 정하세요.**

듣기 편식: 몇 년을 들었는데 입은 그대로입니다

팟캐스트도 듣고 미국 드라마도 봅니다. 알아듣는 것은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면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방: 들은 것을 매일 소리 내어 따라 하세요. 3장에서 방법을 안내합니다.**

완벽주의: 틀릴까 봐 입을 못 엽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든 뒤에야 말하려 합니다. 그러는 사이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긴장하면 들은 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방: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과 녹음부터 시작하세요. 틀린 문장도 진도입니다.**

증거 없음: 느는지 몰라서 그만둡니다

실력은 계단처럼 오릅니다. 평평해 보이는 몇 주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단 앞에서 멈춥니다. **처방: 한 달에 한 번,**

성장을 귀로 확인하세요. 8장에서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대 없음: 배워도 쓸 데가 없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영어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쓰지 않는 말은 굳기 전에 사라집니다. **처방: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를 스스로 만드세요. 5장에서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몰아치기: 사흘 달리고 3주 사라집니다

의욕이 생기면 하루에 세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한참을 쉽니다. 몰아서 한 공부는 빨리 잊힙니다. **처방: 많이 하는 날보다 빠지지 않는 날을 만드세요. 7장에서 하루 30분 루틴을 안내합니다.**

나는 어디서 멈췄을까

아래 여섯 문장 가운데 "그렇다"에 가까운 것에 표시해 보세요. 가장 많이 표시한 것이 당신이 멈춘 자리입니다. 두 개 이상이어도 괜찮습니다.

문장	표시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운 횟수가 실제로 공부한 날보다 많다	☐
알아듣는 것에 비해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
틀릴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
내 영어가 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
영어로 말할 사람이나 자리가 거의 없다	☐
며칠 열심히 하다가 오래 쉬는 일이 반복된다	☐

오늘 해 볼 일

내가 멈춘 자리를 한 줄로 적어 보세요. "나는 ○○ 때문에 멈췄다." 이름을 붙이면 다음에 같은 자리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02 · HOW LANGUAGES GROW

언어는 어떻게 자라는가

아이는 문법책 없이 말을 배웁니다. 그 순서를 따라가 봅니다.

아기가 처음 "엄마"라고 말하기까지, 그 아이는 이미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씻을 때, 잠들 때. 아무도 문법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듣고, 알아듣고, 짧게 따라 하고, 틀리면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어른은 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모국어가 있고, 생각하는 힘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서는 비슷합니다. **먼저 많이 듣고, 그다음 따라 하고, 그다음 내 말을 만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언어학자 크라센(Krashen)은 언어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통해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쉬운 말은 새로 배울 것이 없고, 너무 어려운 말은 소음일 뿐입니다. 지금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렵지만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배움을 보는 세 개의 렌즈

교육학은 사람이 배우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세 가지 모두입니다.

렌즈	언어는	그래서
행동주의	반복으로 굳어지는 습관	입에 붙을 때까지 듣고 따라 합니다
인지주의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	알아차린 것을 잊을 즈음 다시 꺼냅니다

구성주의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	실제 상황에서 실제 사람과 써 봅니다

반복만 하면 앵무새가 되고, 이해만 하면 말이 나오지 않고, 대화만 하면 같은 실수가 굳습니다. 세 가지를 하루 안에 조금씩 섞으세요.

말은 다섯 계단으로 자랍니다

크라센과 테렐(Terrell)은 제2언어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자란다고 정리했습니다.

1. **침묵기.** 말은 거의 못 하지만 귀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2. **초기 발화.** 짧은 표현과 통째로 외운 덩어리로 대답합니다.
3. **말문 트임.** 간단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고, 틀리면서 빠르게 늡니다.
4. **중급 유창성.** 생각과 의견을 문장으로 이어 말합니다.
5. **고급 유창성.** 낯선 주제도 깊이 있게 토론하고 발표합니다.

머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단을 건너뛰면 탈이 납니다. 침묵기에 있는 사람에게 토론을 시키면 입을 닫아 버립니다.

오늘 해 볼 일

다섯 계단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계단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6장의 지도는 그 계단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03 · LISTENING IS NOT ENOUGH

듣기만으로는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귀는 듣기로 자라고, 입은 말하기로 자랍니다.

몇 년 동안 출퇴근길에 영어 팟캐스트를 들은 분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제 꽤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동료가 말을 걸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다른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 스웨인(Swain)은 말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일, 곧 "출력"이 언어를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들을 때는 대충 알아들어도 넘어가지만, 직접 말하려고 하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하지?" 하고 막힙니다. 그 막히는 순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을 때 그 부분이 귀에 들어옵니다.

쉐도잉: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듣기를 말하기로 잇는 가장 쉬운 방법은 쉐도잉입니다. 원어민의 말을 그림자처럼 바로 뒤따라 말하는 연습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해 보세요.

1. **글자를 보며 듣습니다.** 1분 안팎의 짧은 음성과 대본을 준비합니다. 모르는 단어만 확인합니다.
2. **한 문장씩 멈추고 따라 합니다.** 문장이 끝나면 멈추고, 들은 그대로 소리 내어 말합니다. 억양과 쉬는 곳까지 흉내 냅니다.
3. **소리와 함께 말합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소리보다 반 박자 늦게 겹쳐 따라 말합니다.
4. **글자 없이 합니다.** 대본을 덮고 소리만 듣고 따라 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벅찹니다. 속도를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같은 음성을 며칠 반복하면 어느 날 입이 소리를 앞질러 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문장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작은 소리라도 반드시 입 밖으로. 속으로 따라 하는 것과 소리 내어 따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연습입니다. 혀와 입술이 그 소리를 기억해야 말할 때 나옵니다.

오늘 해 볼 일

1분짜리 영어 음성 하나를 골라 위의 네 단계를 한 번씩 해 보세요. 9장의 BBC The English We Speak가 길이로 알맞습니다.

04 · CHUNKS, NOT WORDS

단어보다 덩어리

원어민은 단어를 조립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꺼내 씁니다.

단어를 많이 아는데 말이 느린 분이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를 하나씩 꺼내 문법에 맞게 조립하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어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를 단어 여섯 개로 조립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꺼냅니다.

언어학자 폴리(Pawley)와 사이더(Syder)는 원어민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만들어진 표현 덩어리를 아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덩어리를 많이 가질수록 말은 빨라지고, 문법도 덩어리 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틀릴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덩어리

이럴 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할 때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못 알아들었을 때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천천히 말해 달라고 할 때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What's the word for...?**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Let me think for a second.**
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할 때	**So what you mean is...**
의견을 말할 때	**The way I see it,...**
동의할 때	**That's a good point.**

정중하게 반대할 때	**I see what you mean, but...**
이유를 덧붙일 때	**The main reason is that...**
예를 들 때	**For example, last week I...**
말을 마무리할 때	**So that's why I think...**

나만의 덩어리 노트

- **문장을 통째로 적습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들은 문장 전체를 적습니다.
- **상황을 함께 적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그 말을 했는지 한 줄을 붙입니다.
- **소리 내어 다섯 번 말합니다.** 적기만 한 덩어리는 머리에 남고, 말한 덩어리는 입에 남습니다.

오늘 해 볼 일

위 표에서 덩어리 세 개를 골라, 오늘 하루 혼잣말에 일부러 넣어 써 보세요. 커피를 고를 때, 운전할 때, 저녁을 차릴 때.

05 ·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길: 영어밖에 없는 자리

영어가 공부할 과목에서 살아남는 도구로 바뀌는 순간.

외국에 혼자 떨어져 길을 묻고, 약을 사고, 집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은 몇 달 만에 입이 열립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학습자들을 살핀 연구들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사람들의 말하기 유창성이 특히 크게 자란다고 보고합니다(Freed, 1995).

그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장의 세 렌즈로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말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으니 반복과 보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진짜로 필요한 말이니 온 신경을 기울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 앞에서 막히고 고치며 내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깊은 물에 뛰어들면

겁에 질려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외국에 가지 않아도, 지금 사는 곳에서 영어밖에 없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때	영어밖에 없는 자리
첫째 달	휴대폰과 컴퓨터의 언어를 영어로 바꿉니다. 하루 종일 영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달	하루 한 시간은 혼잣말도, 메모도, 검색도 영어로만 합니다.
셋째 달	가게, 은행, 병원 예약, 고객센터 전화를 번역 앱 없이 영어로 해결합니다.

넷째 달	동네 모임, 봉사 활동, 운동 동호회처럼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자리에 매주 나갑니다.
다섯째 달부터	3분 연설 날짜를 먼저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물러설 수 없는 날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들어가기 전, 그 자리에서, 나온 뒤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쓸 문장 다섯 개를 미리 소리 내어 연습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막히면 4장의 덩어리를 꺼냅니다.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한 문장이면 대화는 끊기지 않습니다. **나온 뒤**에는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말을 적어 두고, 그 말을 영어로 찾아 다섯 번 소리 내어 연습합니다.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볼 일

지금 휴대폰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꿔 보세요. 첫 한두 주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배움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06 · THE SIX-MONTH MAP

6개월 6단계 지도

단계는 달력이 아니라 신호로 넘어갑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을 기준으로 한 지도입니다. 각 단계 끝의 신호가 보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직이면 한 달 더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는 것보다 건너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1 귀 열기

첫째 달

천천히 말하는 영어를 글자와 함께 듣고, 같은 음성을 이해가 70%를 넘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신호: 글자 없이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2 따라 말하기

둘째 달

3장의 쉐도잉을 매일 합니다. 4장의 덩어리를 하루 세 개씩 입에 붙입니다.

신호: 처음 듣는 짧은 문장도 한 번 듣고 거의 그대로 따라 말할 수 있다

3 영어로 생각하기

셋째 달

질문을 들으면 번역하지 않고 바로 소리 내어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영어로 혼잣말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일을 영어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신호: 하루 일을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세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4 대화하기

넷째 달

5장의 "영어밖에 없는 자리"에 매주 나갑니다. 되묻는 말, 시간을 버는 말을 미리 입에 붙여 둡니다.

신호: 처음 만난 사람과 5분 대화를 끊기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다

5 토론하기

다섯째 달

뉴스나 강연 하나를 듣고 "찬성, 반대, 내 생각"을 1분씩 말해 녹음합니다. 이유를 두 개씩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신호: 처음 보는 주제에도 이유를 들어 1분 동안 의견을 말할 수 있다

6 연설하기

여섯째 달

좋아하는 강연 한 편을 한 단락씩 쉐도잉합니다. 내 3분 연설 원고를 쓰고, 매주 녹음해 다듬은 뒤, 정해 둔 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신호: 3분짜리 이야기를 원고 없이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

오늘 해 볼 일

2장에서 표시한 계단을 보고, 이 지도에서 내가 시작할 단계를 정하세요. 달력에 6개월 뒤 날짜를 적고 "연설하는 날"이라고 써 두세요.

07 · THIRTY MINUTES A DAY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많이 하는 날보다 빠지지 않는 날이 실력을 만듭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것보다 여러 날에 나눠서 한 것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수많은 기억 연구가 같은 결론을 보여 줍니다(Cepeda 외, 2006). 일요일에 세 시간보다 매일 30분이 낫고, 바쁜 날의 15분은 아무것도 안 한 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매일 하는 일에 붙이세요

새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 출근길, 설거지, 잠들기 전처럼 이미 매일 하는 일 바로 뒤에 영어를 붙이면 따로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	30분 루틴
아침 5분	오늘의 문장 하나를 듣고 세 번 따라 말하기
이동 15분	이번 주 음성을 이어폰으로 듣기, 걸으며 쉐도잉
저녁 10분	질문에 소리 내어 대답하기, 또는 덩어리 노트 복습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을 영어 한 문장으로 말하기

두 가지 약속

빠진 날은 빈칸일 뿐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다음 날 두 배로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밀린 것을 채우려다 지치는 것이 몰아치기의 시작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날은 5분만.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5분만 하고 그만둔다"고 정하세요. 5분 뒤에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그날도 빠지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 해 볼 일

내 하루에서 영어를 붙일 "이미 하는 일" 두 가지를 정해 적어 보세요. "커피를 내린 뒤", "차에 시동을 건 뒤"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08 · HEAR YOUR GROWTH

성장을 귀로 확인하는 법

실력은 매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면 들립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 아이가 크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만난 친척은 "많이 컸네"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영어도 같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느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1장의 "증거 없음" 때문에 멈춥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내 목소리를 남겨 두고, 한 달마다 같은 질문에 다시 답해 나란히 들어 보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기본으로 있는 녹음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30초 녹음하는 법

1. 조용한 곳에서 녹음 앱을 켭니다.
2. 이 질문에 30초 동안 영어로 답합니다. "Tell me about yourself. Who are you, what do you do, and why are you learning English?"
3. 틀려도 멈추지 말고 30초 끝까지 말합니다. 대본을 보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담깁니다.
4. 파일 이름을 "영어 첫날"과 오늘 날짜로 바꿔 저장합니다.
5. 달력에 30일 뒤를 표시합니다. 그날 같은 질문에 다시 답합니다.

나란히 들을 때 이것을 들어 보세요

- **단어 수.** 30초 동안 몇 단어를 말했는지 세어 봅니다.
- **멈춤.** "음..." 하고 멈춘 횟수가 줄었는지 들어 봅니다.
- **표현.** 첫날에는 없던 덩어리가 나오는지 들어 봅니다.

비교는 늘 남이 아니라 첫날의 나와 합니다. 원어민과 비교하면 언제나 멀어 보이지만, 첫날의 나와 비교하면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오늘 해 볼 일

이 장을 덮기 전에 녹음 앱을 켜세요. 지금이 첫날입니다.

09 · FREE RESOURCES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접속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1~2단계: 귀 열기와 따라 말하기

BBC 6 Minute English
매주 6분짜리 대화와 대본, MP3
bbc.co.uk/learningenglish

BBC The English We Speak
3분 안팎으로 생활 표현 하나씩. 쉐도잉에 알맞은 길이
bbc.co.uk/learningenglish

VOA Learning English
천천히 읽어 주는 미국 뉴스와 대본
learningenglish.voanews.com

Rachel's English
미국식 발음과 리듬을 입 모양까지 보여 주는 유튜브
youtube.com/@rachelsenglish

3~4단계: 영어로 생각하기와 대화

Speak English With Vanessa
미국 일상 표현과 말하기 연습 유튜브
youtube.com/@SpeakEnglishWithVanessa

Luke's English Podcast
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는 영국 팟캐스트

teacherluke.co.uk

All Ears English

원어민 진행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팟캐스트

allearsenglish.com

English with Lucy

대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과 발음 유튜브

youtube.com/@EnglishwithLucy

5~6단계: 토론과 연설

Open to Debate

미국의 공개 토론 프로그램. 찬반 논증의 구조를 배웁니다

youtube.com/@OpentoDebate

TED-Ed

5분 안팎의 주제 강의. 듣고 내 의견을 말하는 연습에 좋습니다

youtube.com/@TEDEd

TED Talks

대부분 영어 대본이 함께 있어 연설 구조를 배우기 좋습니다

ted.com/talks

Toastmasters International

세계적인 말하기 모임. 지역 모임에서 실제로 연설해 볼 수 있습니다

toastmasters.org

각 자료는 제작자의 저작물입니다. 개인 공부용으로만 쓰세요.

10 · DAY ONE

나가며: 첫날 30초

오늘이 열한 번째 시작이 아니라, 첫날이 되기를.

이 책에 적은 것들은 새로운 비밀이 아닙니다. 많이 듣고, 소리 내어 따라 하고, 덩어리로 기억하고, 영어밖에 없는 자리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매일 조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 내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늘 작은 틈이 있습니다. 지난 열 번의 시작이 멈춘 곳도 아마 그 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탁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30초 동안 영어로 나를 소개해 주세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잘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여섯 달 뒤 그 녹음을 다시 들을 때, 오늘의 서툰 목소리가 가장 고마운 기록이 될 테니까요.

> **여섯 달 뒤의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기를 바랄까요.**

APPENDIX · ECHO

이 길을 함께 걷는 앱, Echo

이 책의 방법을 하루 30분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책은 Echo 없이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썼습니다. 다만 혼자 하다 보면 "오늘은 뭘 하지?"를 매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다시 멈춤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Echo는 그 고민을 대신 맡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Echo에서는
1장 멈춘 자리 찾기	6문항 진단 뒤, 내 유형에 맞는 오늘 할 일 하나
2~3장 듣고 따라 말하기	생활 영어 레슨 60개, 글자 보며 듣기, 속도 조절, 쉐도잉
4장 덩어리	표현 저장과 잊을 즈음 다시 보여 주는 복습
5장 영어밖에 없는 자리	실제 대화를 받아쓰고 문장별로 교정해 나만의 레슨으로
8장 30초 녹음	"내 목소리 6개월": 매달 녹음 날짜 알림, 첫날과 나란히 듣기
9장 무료 자료	팟캐스트 MP3, 유튜브, 내 오디오를 문장마다 나눠 반복

먼저 14일, 그다음 결정

Echo는 14일 동안 모든 기능을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첫날 30초 녹음을 남기고, 14일 뒤 같은 질문에 다시 답해 두 녹음을 나란히 들어 보세요.

그 차이를 들으시고 계속하고 싶으시면, 그때 결정해 주세요. Echo는 **$97 한 번 결제로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없고, 앞으로 더해지는

기능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병원에서 내 증상을 설명하고, 아이의 선생님께 직접 묻고, 회의에서 내 의견을 끝까지 말하는 날. 그날의 값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투자라고 믿습니다. 망설이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14일을 드립니다.

www.hebronlingua.com

문의 HebronPlatform@gmail.com

REFERENCES

참고 문헌

1. Cepeda, N. J., Pashler, H., Vul, E., Wixted, J. T., & Rohrer, D. (2006). Distributed practice in verbal recall tasks: A review and quantitative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3).
2. Freed, B. F. (Ed.). (199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John Benjamins.
3.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on.
4. Krashen, S. D., &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Pergamon.
5.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6. Pawley, A., & Syder, F. H. (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fluency.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gman.
7. Skinner, B. F. (1957). *Verbal Behavior*. Appleton-Century-Crofts.
8.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bury House.
9.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이 책은 자유롭게 나누셔도 됩니다. 내용을 고치지 않고, 출처(Echo · HebronLingua)를 밝혀 주세요.

© 2026 Hebron Platform LLC